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2. 1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이란의 서방 반체제 인사 암살에 조폭 동원 주장
 - 2.5 언론은 英 보안당국 관계자를 인용, 최근 이란 정보기관이 英·美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살해 시도를 위해 수십만 달러를 주고 갱단과 조직화된 범죄 단체 등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
 - * 이와 관련, 英 대테러경찰은 런던을 거점으로 삼은 수 백명의 이란 반체제 인사들에게 호신술 등을 알려주고 있다고 부언
- 튀르키예, 테러 공격 음모 관련 ISIS 요원 15명 구금
 - 2.5 튀르키예 경찰은 최근 쿠란 소각 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내 서방 국가 공관 등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, ISIS 조직원 등 15명을 구금했다고 발표
 - * 체포된 용의자들 대상으로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 테러 증거는 未확보

미주

- 美, 총기 밀매 조사 보고서 발표
 - 2.2 주류·담배·총포 담당국(ATF)은 총기 밀매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'21년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총의 54%가 3년 이내에 구입된 것이며, 대부분의 총기가 구입 뒤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
 - * '17~'21년까지 107만개 이상의 총기가 도난된 것으로 집계
- 美, 볼티모어 전력시설 파괴 공모한 네오나치주의자 기소
 - 2.6 美 FBI·연방검찰은 인종차별적 동기에 의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市 다수의 변전소 공격을 모의하던 「브랜던 러셀」(27세)* 등 2명을 체포하여 에너지 시설 파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
 - * 同人是 '15년 결성된 네오나치·백인우월주의단체 '아툼바펜 디비전'의 창설자로 과거 미등록 폭발물 보관 등 혐의로 징역 5년형 선고, 복역 이후 보호관찰 기간 中 범행

아 · 태평양

○ 파키스탄 경찰, 모스크 테러 용의자 23명 체포

- 2.2 언론은 파키스탄 경찰이 지난달 101명의 목숨을 앗아간 페샤와르 모스크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페샤와르와 아프간 국경 등지에서 용의자 2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

* “폭발물이 어떻게 모스크로 반입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용의자와 조력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일당은 외부와도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”고 부언

○ 軍·대전시, ‘2023년 對드론 세미나’ 개최 예정

- 육군 교육사령부·대전시는 오는 22일 ‘2023년 對드론체계 전투발전 세미나’에서 △對드론체계 구축 방안(통합방위 연계) △국내외 드론테러 유형별 대응방안 △국내 드론장비 기술수준 등을 공동으로 논의할 예정

* 국방부·국방과학연구소·한화시스템 등 정부관계자·민간전문가 150여명 참석

중 동

○ 시리아, 교도소 수감 ‘ISIS’ 대원 20여명 탈출

- 2.7 외신은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한 시리아 북서부 라조마을 교도소에서 이번 강진을 틈타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 교도소 일부를 장악했으며, 수감중이던 ISIS 대원 최소 20여명이 탈출하였다고 보도

* 同 교도소에는 약 2,000여명이 수감중이었으며, 그 중 ISIS 대원은 1,300여명으로 추정

아프리카

○ 민주콩고공화국에서 UN평화유지군 헬기 피격

- 2.6 언론은 전날 오후 3시경 민주콩고공화국 동부 노스키부주 고마로 향하던 UN민주콩고 안정화임무단(MONUSCO) 헬기가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했으며, 공격 배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

* MONUSCO 측은 UN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 해당한다고 비난하였으며, 「구테흐스」 UN사무총장은 민주콩고 정부를 대상으로 진상 파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

탈레반의 아프간 카불 대법원 자살폭탄 테러사건

- '17.2.7 아프가니스탄 동부 카불주에서 탈레반은 대법원 청사 직원들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, 20명이 사망 · 45명이 부상
 - 현지 경찰에 의하면 테러범은 직원들이 퇴근으로 붐비는 오후 3시 45분경 대법원 건물 출입구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자행
- 과거 탈레반은 정부의 사법제도 등에 불만을 발표하며 대법원 · 지방 법원 건물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*를 노리고 수차례 테러를 시도
 - * 同日 아프가니스탄 파라주 하키사파이드 지역에서 장관이 탑승한 차량을 대상으로 IED 공격, 「압둘 칼리크」 장관 1명 사망
- 「아슈라프 가니」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“이는 인류에 反하는 범죄이고,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”라고 규탄
 - 또한, 이번 테러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경계 강화를 지시

< 탈레반(Taliban) >

- **(결성)** 아프간 공산정권 붕괴('92.4) 후 시작된 내전중 「물라 오마르」가 '94.8 칸다하르주 마드라사(이슬람 神學校) 학생들을 규합하여 결성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'13.5 캐나다 / UN·美·英 등은 테러단체로 미지정
- **(활동)** '96.9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으나 '01.10 아프간戰 개전으로 축출 → 게릴라戰 · 테러 등으로 저항하다 '20.2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 → '21.8 미군 현지 철수 및 기존 아프간 정부의 항복 선언으로 아프가니스탄 再집권
 - '21년 再집권 이후, 국가운영 정상화에 노력중이나 ISIS-K(ISIS-호라산 지부)의 테러공세 강화, 反탈레반 세력 활동 등으로 정국 불안 지속
 - 게다가, 탈레반의 대테러 ·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국제사회가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해외자산까지 동결하고 있어 경제악화 위기에 직면